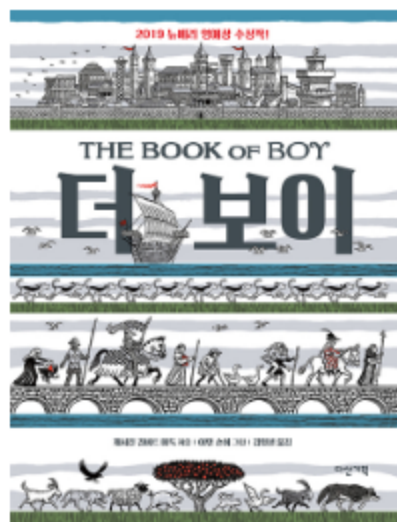


효천 테마 독서

"모험"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더 보이> 캐서린 머독 / 다산기획

1350년대 중세 유럽은 전염병과 전쟁 등으로 피폐한 시대였어요. 순례자 서컨더스는 유물을 찾는 여정의 길에 곱사등 때문에 괴물 취급을 받고 존재감 없던 보이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보이는 서컨더스와의 여정을 통해 몰랐던 위험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서컨더스와 나눈 우정, 공감, 성취 등을 통해 보이는 자신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보이의 이야기를 만나보러 가요.

<신기한 방귀 가루> 요 네스뵈 / 사계절

프록토르 박사는 강력한 방귀 가루 제조에 성공했어요. 박사의 조수인 초등학생 볼레와 리세는 이 가루를 나사에 판매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음모에 빠진 박사와 볼레는 죽음의 지하 감옥에 갇혀버려요. 리세는 바깥 상황을 보고 볼레와 박사에게 알려 탈출을 도와줍니다. 조금은 엉성하지만 무사히 탈출에 성공해요. 하지만 탈출한 이후에는 또 다른 역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박사는 방귀 가루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효천 테마 독서

"모험"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사자왕 형제의 모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 창비

병약한 동생 카알은 병 때문에 곧 죽을 것을 예감하며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2층 집에 불이 나면서 형 요나탄이 카알을 업고 뛰어내려 먼저 죽게 됩니다. 죽기 전 요나탄은 카알에게 죽은 뒤 가게 되는 '낭기열라'라는 곳에 가면 신나는 생활을 할 거라고 얘기했죠. 요나탄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카알도 죽음을 맞이해요. 카알도 요나탄을 따라 낭기열라로 가면서 신비한 모험을 경험하게 돼요. 낭기열라에서 카알과 요나탄은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밤 코끼리와 모험을 떠날 거예요> 올리버 세르츠 / 책속물고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부모님 없이 지내는 밤. 누군가 창문을 푹푹 두드립니다. 동물원에 있어야 할 코끼리가 집 밖에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코끼리 아부우의 요청에 요샤와 마리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납니다. 모험을 하면 할수록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와 공감으로 헤쳐나가게 됩니다. 아부우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효천 테마 독서

"모험"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놀라운 모험의 세계> 이름 모를 모험가 / 제제의숲

아마존 자리강 강변의 외딴 오두막에서 발견된 금속 상자. 그 안에는 이름 모를 모험가가 남겨둔 수첩, 스케치북,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 모를 모험가의 온갖 정보들을 보기만 해도 마치 모험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캠핑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이름 모를 모험가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 모험을 떠나봐요.

"책은 각각의 독서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 보르헤스 -